

# 깨달음의 길서 욕망은 도반이자 친구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 일행에 합류한 저팔계

관음선원 야단법석을 치르고 몇 날 며칠을 부지런히 걸어 도착한 곳, 고(高)씨가 주로 사는 동네 고로장(高老庄)이었다. 그 마을에서도 행색이나 하는 집, 고태공의 집에 머물렀는데 그 집에 큰 우환거리가 있다. 딸만 셋 둔 집안이라 막내딸은 데릴사위를 맞으려 했는데 마침 준수한 신랑감이 나타났더라나?

그래서 얼른 데릴사위로 들었는데 참으로 힘도 좋고 부지런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모습이 변하더라나?

완전히 돼지 모습으로 변하고 거기에 도술까지 부려대고 우리 귀여운 딸 뒷방에 가둬놓고 얼굴도 못 보게 하니 무섭고 겁나서 살길이 없네.

간질하게 이 우환을 해결해 달라는 고태공의 부탁에 손오공 가슴을 팡팡~ 두드린다.

이 제천대성 손오공만 믿으시라. 마침 요괴사위 없는 뜰에 딸을 구해내고 손오공 딸 모습으로 둔갑하여 요괴사위를 기다린다. 밤이 이슬하니 과연 일진광풍과 함께 요괴사위 등장~

손오공과 요괴사위 쓰담쓰담 오호호호~~그랬을 터이~~~ 없지

이리저리 수단 부려 요괴의 주민등록지 캐내곤 결국 한바탕 드잡이가 붙는다. 알고 보니 요괴의 신분도 범상치 않다. 도술을 배워 신선의 반열에 올라 하늘나라에서 천봉원수라는 직책까지 받았던 귀하신분. 식욕과 색욕을 통제 못하는 것이 병이라 술 먹고 월궁항아리에 성주행을 벌인 죄로 이 세계로 떨어지신 분.

제천대성으로 날뛰며 분탕질 치던 손오공 과거기도 아는 요괴라 싸우며 정드는 것이 아니라 싸우며 정제 파악되고 관세음보살 부촉 받고 현장법사 기다리고 있었다는 요괴 신세타령도 나오니 이 요괴 잡이도 뒤가 심하게 팔리고 만다.

손오공이 요괴 귀 팔고 삼장법사에게 데려오니 상황 끝! 관세음보살이 요괴에게 붙여준 오능(悟能)이란 범명과는 별개로 여덟 가지 계행을 계속 지키라는 의미로 팔계라는 이름을 주니 본래 성씨가 저(猪:돼지)씨이니 저팔계(猪八戒)라! 드디어 서유기 삼총사 가운데 둘째를 맞았구나!

이제 저팔계를 맞는 대목이군요. 손오공이 영민한 재주와 칼칼한 성질 등으로 알려져 있다면 저팔계는 어떻게 알려져 있지요? 먹을 것과 여자라면 전혀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존재로 묘사되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단도 많이 일으키는 것이 바로 저팔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손오공보다 친숙한 느낌이 드는 것이 저팔계이기도 하지요. 아마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것이 저팔계이기에, 어떤 때는 그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감성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가 저팔계를 보는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저팔계는 이미 관세음보살이 중국으로 오는 길에 인도로 불경 가지러 오는 이를 위해 안배를 해 놓

은 도우미이지요. 오능(悟能)이라는 범명도 주었고요. 능력을 깨닫는다는 뜻이 되나요? 아무튼 그런 도우미로 준비된 존재인데 그렇게 평탄하게 만나지는 못합니다. 서유기에 어디 쉽고 평탄하게 되는 일 하나 있던가요? 모든 것은 고생을 겪으며 얻어야 그 값이 나간다는 것이 서유기 저자의 기본 철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애당초 그리 쉽게 만날 존재가 아닌 듯 하기도 하구요.

저팔계가 대표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여러분도 쉽게 짐작하실 거 같네요. 돼지의 외모를 통해서 상상이 되는 것, 바로 욕망 또는 탐욕이라 부르는 영역이겠지요? 물론 이런 이야기는 돼지의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기에, 돼지에게는 꽤 미안한 이

## 고로장의 돼지 요괴를 사로잡다

## 8가지 계를 지키란 의미에서 팔계

## 손오공을 보좌하는 수행 도우미

야기일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로는 돼지가 매우 영리하고 또 깨닫는다는 설도 있구요. (나칠게씨 쪽을 안쳐다보려고 애쓰면서도 자꾸 힐끔 힐끔 눈치를 보게 되는 삼과선생) 그렇지만 어찌됐어요. 일단 이미지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으니, 그에 따를 수밖에요. 그리고 그런 이미지는 이미 서유기가 씌여지던 시절부터 있었던 거 같으니, 돼지의 본성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 수도 없겠습니까. 그렇게 오랜 동안 그렇게 여겨졌다면 다 이유가 있을 터이니깐요.

이 욕망, 탐욕이 어디 길지 잘 드는 것이던가요? 이미 보살의 인도를 받아 바른 길로 가기로 했지만, 그 사이 벌써 판 짓을 밟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는 것이 정말 맹랑한 짓~. 고태공의 집에 데릴사위로 들어가 꽃다운 처자의 신랑노릇을 하고 있네요. 저팔계로서야 정말 아무 잘못도 없다고 우길 만합니다. 힘쓰고 도술 써서 처가에도 도움이 되고 있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 아니냐고 우길만한 일이지만, 문제는 저팔계의 외모군요. 완전히 사람이 아닌 존재라는 것이 어디 그리 쉽게 용납이 됩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진 존재, 사람이라고 보기 힘든 존재를 어느 정도로 우리 속으로 용납할 수 있을까요. 그러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그런 정도의 선이라면 우리도 함께 존재할 수 있지 모르지요. 그렇지만 완전히 우리 속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경우, 우리와 똑같이 대접을 해주고, 우리와 같은 존재로 여겨야만 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쉽게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울타리를 치고, 벽을 쌓게 마련입니다. 나와 같은 존재들끼리의 울타리, 나와 다른 존재들을 차단하기

위한 벽... 그런 것들을 무수히 쌓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한 벽들이 강고하게 자리잡아 마땅히 함께해야 할 존재들까지 그 벽 밖으로 내치려 하게 되면 큰 갈등과 싸움이 벌어지게 마련이구요. 그렇기에 가능하면 그런 울타리들과 벽을 허물어가면서 살려고 해 보지만 그게 어디 그리 쉽습니까? 유능한 성주는 네 대문을 활짝 열어 놓고 사람들 왕래를 시키면서도 성을 잘 다스린다 하지만, 그래도 가장 쉽게 성을 다스리는 방법은 네 대문 닫아걸고, 통행시사를 엄격히 하면서 다스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울타리와 벽을 쌓아가는 방식을 고집하게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울타리와 담 가운데 엄청나게 튼튼하고 단단한 것이 외모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피부색을 넘어 하나의 인류라는 사실에 도달하기까지 정말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던가를 한번 반성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피부 색깔을 넘어, 그것에 전혀 마음 두지 않고 사람을 대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 쉽지 않을 겁니다.

바로 여기가 문제이지요. 저팔계는 저팔계 나름대로, 내가 뭐 잘못된 것이 있겠느냐 하면서 일반 사람들의 인식을 가볍게 무시하고 있군요. 고태공 집안에서는 사위의 능력이나 기여도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단지 그가 요괴라는 것만을 문제 삼고 있군요. 그러니 결과는? 파탄이요, 결렬이죠. 그런데 이 요괴가 보통이 아닌지라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데, 마침 현장법사 모신 손오공 일행이 집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당나라에서 온 고승이라 하니, 당연한 수순으로 요괴퇴치를 부탁하게 되고, 또 당연하게 힘쓸 거리 없이 심심해하던 손오공이 말고 나서고....., 그러

면 당연하게 요괴와 손오공의 한바탕 드잡이질이 벌어지고...

그런데 이 저팔계와 손오공의 싸움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네요. 한바탕 싸움하는 도중에 서로의 신분이 밝혀지거든요. 그래서 저팔계가 관세음보살 부촉을 받고 현장법사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바로 싸움이 끝나고, 손오공이 저팔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좀 싱겁지만, 저팔계가 자신의 과거사를 이야기하고, 현장법사 모시고 떠나면서 속세에 끈을 남겨두려 하는 이야기 매우 재미있었습니다.

우선 저팔계는 지금 돼지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결코 비천한 신분이 아닙니다. 신 선술을 배워 하늘나라에서 벼슬까지 하던 인물, 즉 왕년에 한가락 하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죄를 지어 하계로 추방되었을 뿐이지요. 그리고 추방될 때 잘못하여 돼지의 태속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 돼지 모습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그 하늘나라에서 지은 죄고 월궁항아리에 대한 추행죄라는 것이 저팔계의 품성을 짐작하게 하지요. 또 돼지의 태 가운데 떨어진 것도 불교의 업설에 근거해서 보자면 역시 돼지와 친숙한 습성을 지녔기에 그랬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이미 앞에서 했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하여 저팔계를 비하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말한다면, 저팔계가 대변하고 있는 인간 심성의 한 측면, 즉 욕망이나 탐욕 그 자체를 죄악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본디부터 가진 것이 근본적으로 나쁜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단지 우리가 진리에 눈뜨지 못하고, 아집에 빠져서 그 가진 것들이 죄업을 짓도록 만들 뿐 아닐까요? 우

리의 뜻이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가진 모든 요소들이 그 올바른 뜻을 위해 봉사하게 되지 않을까요? 제가 계속 힘주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승의 큰 길은 이것은 좋은 것이니까 함께 가고, 저것은 원래 나쁜 것이니까 버리고 가든가, 감옥에 가두어 놓자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부처되는 길의 도우미로 삼아서, 함께 데리고 가는 것이 대승의 큰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통제하기 힘든 것들은 적절히 격리시키는 방식이 편할 수 있겠지만, 그런 쉬운 길을 가려하기보다는 힘들더라도 모든 것들을 함께 데려가는 것이 대승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미리 앞질러서 이야기를 좀 해 볼까요? 서유기의 마지막에는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 모두 경을 가지고 온 공을 인정받아 큰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손오공은 '부처'의 등급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손오공이 성불한 거예요! 그럼 저팔계와 사오정은? 미리 다 이야기하면 좀 싱거워지니 살짝 귀뭇만 해 드리지요. 꽤! 꽤 높은 지위를 얻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욕망, 탐욕과 같이 우리가 나쁜 것으로 보기 쉬운 것들도, 깨달음의 길에 도우미가 될 수 있고, 그 결과로 훌륭한 것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저팔계와 사오정도 확 부처 지위를 줘 버리고 싶더군요. 왜 꼭 손오공은 부처지위로 승격시키고 저팔계 사오정은 한 단계는 낮추었는지, 저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서유기가 씌여지던 당시만 해도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앞으로는 저팔계의 속 썩이는 이야기까지 기대해 보기로 할까요?



그림 · 최주현

### 마하연여행사

예약문의 02)365-7747  
www.mahayeon.com 대표 청정행 두손모음  
오시는 길 : 서울 조계사 앞

### 출발 확정 상품

인도 11일	요즘문의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요즘문의
스리랑카 8일	요즘문의	(지장도량/관음도량) 구화산/보타낙가산 6일	요즘문의
미얀마 6일	요즘문의	(미얀마)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찌리티오 7일	요즘문의

## 미얀마 - 중국 성지순례

한시 출발

### 미얀마

선불 선량의 나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찌리티오 7일(3대성지 순례)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벤티야 7일
- 양곤/바간/헤호 5일

### 중국

- [지장도량]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6일
-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 [문수도량] 오대산/북경 5일
-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향주 5일
- [관음도량] 보타산/낙가산/향주 5일
-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 산둥 문화탐방 5일, 청도/곡부/태산 6일 - 웨리크루즈
- 태항산/천계산/요산(208M 중원대불) 5일
- 공중도시 면산 & 태항 대협곡 5일

### 인도/네팔/스리랑카

인도 11일(8대성지순례)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나란다-라즈기르-바이살라-쿠시나गर-클루나-스라바스티-산키시아-아그라

인도/네팔 15일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블라-시그리야-플로나루와-일루비라-칸디

스리랑카 완전일주 8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블라-시그리야-플로나루와-칸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스리랑카/인도/네팔 15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블라-시그리야-플로나루와-미탈레-칸디-콜롬보-몽바이-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파트나-바이살라-쿠시나गर-쉬라바스티-클루나-카트만두-니가르코트

### 티벳/부탄

티벳 6일  
성도-리싸-양드록추-간체-시가체

티벳핵심 하늘열차 8일  
중경-리싸-정체-시가체-리싸-난주역-하늘열차

부탄/네팔 8일  
카투만두-피로-팀푸-왕디포드랑-통사-푸니카-팀푸-피로-카투만두-니가르코트

동티벳 9일  
성도-문전-머얼링-통달(오명불학원)-백목(아침스)-간딩-성도

### 마하연의 특별함

-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책정 (거침없는 상품가력)
- 오랜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 호텔 - 행사일정 - 식사 (타사 비교 필수)

### 라오스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 8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 베트남/캄보디아

하롱베이/씨엥립 6일

### 대만/홍콩

대만 5일  
대만3대사찰

대만/홍콩 5일  
홍콩(2)-대만(1)-화련

### 세계문화 탐방 베스트 상품

- 그리스 문화탐방 9일
- 하와이 문화탐방 6일
- 동유럽 문화탐방 8일
- 서유럽 문화탐방 8일
- 미서부 문화탐방 9일
- 미동부 문화탐방 9일